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NO LIVE FILES REMAIN

가제 : 활성 파일 없음

저자 : András Forgách

출판사: Scribner UK

발행일: 2018년 4월 4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소설/ 역사, 가족 소설



*** 영화 제작 확정 / 캐나다, 카탈로니아,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아랍, 스페인 판권 계약 체결**

*** “절대적 감동과 놀라움을 주는 책.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 헝가리 역사가 크리스티안 웅바리**

공산주의 체제가 물러난 지 30여 년이 지난 헝가리에서 저명한 소설가이자 예술가로 살아온 작가는 가족의 역사를 조사하던 중 믿기 힘든 사실을 발견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카다르 야노시 정권 시절의 정보원이었다는 사실이다. 진실의 무게에 눌려 주저앉는 대신 주어진 진실을 품고 살기로 결심한 작가는 실화와 소설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 소설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살아온 길을 되짚어보고 그 어머니의 아들로 살아온 자신의 아름다웠던 기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사회주의 시대에 이루어진 정보원 활동에 대해서는 무수한 자료가 쏟아져 나왔지만 아직까지 헝가리 사회에서는 당시의 일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길 꺼려하고 문학 작품으로 다루어진 사례는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작가는 비밀공작원들의 삶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여 이 책을 완성했다. 견디기 힘든 과거와 정면으로 맞서려는 그의 개인적인 의지이자 체제 유지를 위해 희생당한 사람들의 기억 때문에 조용히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수많은 헝가리 국민들을 위로하는 메시지이고 끊임없이 나라의 통제와 감시를 받아야 했던 사람들, 은밀하고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진 정보원들의 삶을 밝힌 역사적 자료가 될 만한 성과이다.

제목에 등장하는 활성 파일(Live File)은 사회주의 체제 헝가리에서 실제로 사용되던 표현으로, ‘활성 파일 없음’은 기밀보고 업무를 하는 정보원 개개인마다 마련되어 있던 파일이 닫혔음을 의미한다. 즉 그 파일에 더 이상 추가될 내용이 없다는 것으로, 정보원의 존재가 사라졌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책은 총 일곱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1장부터 6장까지는 ‘파파이 부인’이라는

가명으로 불리는 한 여성의 이야기가 3인칭으로 전해진다. 1962년부터1985년까지 그녀가 평범한 여성으로 살면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엄마가 되는 이야기와 맨 처음 국가의 비밀 정보원으로 채용된 계기와 숨을 거둘 때까지 이어간 활동들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느끼는 진솔한 감정이 동시에 전해진다. 마지막 7장은 1인칭 시점으로 바뀌어, 한 나라의 정보원이자 한 가족의 아내, 엄마로 사는 여성의 심경이 더욱 생생하게 전해진다. 저자는 이 마지막 장에서 자신이 어머니에 대해 알아낸 충격적인 사실들, 가족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국가에 정보를 제공했던 그 투철한 어머니의 사명감을 이해해보려 했던 자신의 노력을 담았다. 남편과의 복잡미묘한 관계, 고향인 팔레스타인을 한시도 잊지 못했던 절절한 그리움, 공산주의에 심취하게 된 배경, 시온주의에 대한 반발심, 그리고 체제 유지라는 거대한 목표를 위해 고통당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소설 속 주인공을 통해 생생하게 전해진다.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듯이 저자는 어머니의 놀라운 과거를 알게 된 후부터 이 작품은 쓰고 안 쓰고를 선택할 수가 없고, 정해진 운명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쓸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2015년 헝가리에서 처음 출간된 뒤 역사적 가치와 더불어 문학적 가치를 동시에 인정 받는 이 작품은 비밀과 거짓말, 강요된 침묵 위에 쌓아 올려진 일그러진 정치 체제를 낱알이 고발하고 아직까지도 당시 비밀 정보원들에 관한 자료가 대중에게 전부 공개되지 않는 현실을 꼬집는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과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용서할 것인지 고민하게 하면서 독자들에게 큰 울림을 준다. 우리는 누군가를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언정 정말 제대로 다 알 수 있을까? 끊임없이 문학의 화두가 되는 이 주제에 정치적, 사회적, 심리학적 요소를 결합한 강렬한 소설이다. 실제 헝가리 정보원들에게 국가에서 배포한 활동 지침 문서와 내부 기밀 보고서가 중간중간 제시되어 이야기의 무게를 한층 더한다.

<저자 소개>

안드라스 포르가흐(András Forgách)는 헝가리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작가이자 문학 번역가, 극작가, 시각예술가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예술가인 형제들과 함께 반체제 문화 활동을 이끌었다. 대표작으로는 『Zehuze』 등이 있다.

제목 : THE GRAVE TENDER

가제 : 무덤 관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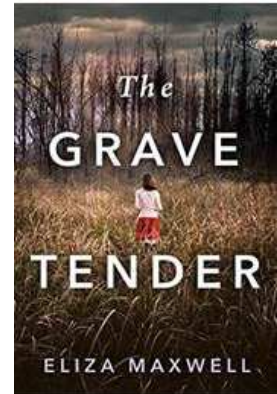
저자 : Eliza Maxwell

출판사: Lake Union Publishing

발행일: 2017년 4월 11일

분량 : 236 페이지

장르 : 소설/ 심리 서스펜스 소설



* “시작부터 흡입력이 대단하다. 등장인물 모두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 진실을 알아내려고 애쓰게 되는 중독성 있는 소설이다.” - 「*Insite Magazine*」, 셀비 르메이에르

* 오랫동안 묵혀진 가족의 비밀, 절대 끊어질 수 없을 것만 같은 유대감의 한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어두운 몸부림에 관한 심리 소설

1989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노는 것을 더 좋아하는 해들리는 할머니, 엄마, 아빠와 함께 텍사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다. 사실 가족이 한 명 더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들 수군거리는 이상한 사람이자 해들리도 떠올리기만 하면 겁부터 나는 사람이라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바로 삼촌 엘리였다. 할머니나 아빠는 삼촌이 누구를 해치거나 못살게 구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멀쩡한 집을 놔두고 인적이 드문 숲 속 오두막에 혼자서만 사는 것이나 얼굴을 바로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징그러운 흉터가 가득한 것도 어린 해들리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수도물도 없어서 물을 떠다가 써야 하는 그런 외진 곳에서 왜 삼촌은 혼자 살고 있을까? 아빠는 삼촌이 선택한 일이라고만 이야기할 뿐 더 이상은 말해주지 않았다. 한때 집 둘레 드넓은 땅을 소유했던 해들리 집안의 일에 대해 어른들은 뭔가 알고 있는 눈치였지만 아이들은 알 수가 없었다. 해들리의 엄마가 사람들에게 “영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불리는 것도, 실제로 방안에 틀어박혀 통 나오지를 않고 밤이 되어서야 집 밖을 어슬렁대는 엄마의 이상한 행동도 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가십거리였다. 게다가 집 뒤편 낡은 헛간에는 철이 벗겨지고 여기저기 부서진 회전목마의 말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해들리의 할머니가 하는 일이 이 망가진 말들을 고치고 다시 칠하는 일이었는데, 할머니 역시 시간이 나면 묵묵히 작업에만 몰두할 뿐 해들리가 궁금해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외면하기 일쑤였다. 그래도 늘 세심하게 돌봐주는 아빠와 할머니 덕분에 그럭저럭 잘 지내던 해들리에게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만다.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해도 평범하다고 느꼈던 삶이 더 이상 정상이 아닌 것이 되어버린, 씻어낼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사건이 연이어 터진 것이다.

첫 번째 사건은 학교 친구인 쿠퍼가 사라진 일이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쿠퍼를 찾아 헤맸지만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고,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은 한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다. 바로 해들리의 삼촌 엘리였다. 사람들은 어쩌면 엘리 삼촌이 한 짓인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역시 예상대로 그가 ‘괴물’이 맞았다고 심한 욕까지 입에 올렸

다. 마을 분위기가 흥흥해진 사이, 해들리의 집에서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유산을 하고 힘들어하던 엄마가 또 다시 뱃속의 해들리 동생을 잃는 일이 생기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것이다. 문제는 달빛이 흰했던 그날 밤, 열살밖에 되지 않은 해들리가 그 장면을 목격해버렸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엄마가 죽음에 이르는 모습을 본 해들리는 그 날 이후 다른 아이가 되고 말았다. 누구와도 만나지 않고, 학교도 가지 않고, 눈 뜨고 있는 시간 동안 내내 붙어다녔던 친구 주드와도 만나려 하지 않았다.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해들리는 성인이 되어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그렇게 집 안에서만 보내다 떠날 수 있게 되자마자 고향을 떠나버렸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잊어야만 하는 일들을 다 씻어버리고 싶었다. 그 뒤로 해들리의 모습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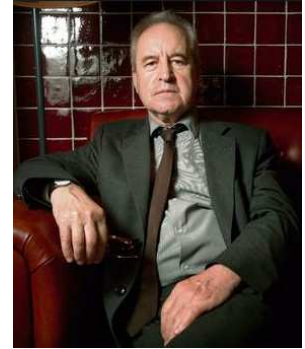
그러나 10여 년 뒤,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해들리가 고향에 돌아왔다. 남편과 사별하고 뱃속에 아이를 가진 채로 돌아온 해들리를 아빠도, 할머니도 모두 따뜻하게 반겨 주었지만 십 년이 넘도록 행방이 묘연한 쿠퍼와 여전히 숲에 사는 엘리 삼촌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해들리 집안 사람들을 고깝게 보는 분위기는 여전했다. 더 이상 물러나지 않기로 결심한 해들리는 입을 꼭 다문 아빠와 할머니의 고집에도 불구하고, 친구 주드와 함께 가족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한다. 왜 할머니가 집 뒤편 헛간에서 망가진 회전목마를 고치는 일을 하는지, 왜 삼촌은 세상과 단절된 채 숲에서 살아야만 하는지, 오래 전 너무 어려서 알 수 없었던 무수한 비밀들이 하나 둘 벗겨지고 해들리는 지금까지 자신이 보고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가족들의 실체 앞에서 또 다시 충격에 휩싸인다. 과연 이곳은 새로 태어날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곳인가? 해들리의 의문은 깊어만 간다.

오랫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비밀이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을 긴장감 넘치게 그려낸 흡입력 있는 서스펜스 소설이다.

<저자 소개>

엘리자 맥스웰(Eliza Maxwell)은 텍사스에서 소설가 겸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다. 전작으로는 『The Kinfolk』가 있으며 『The Unremembered Girl』는 올해 가을에 출간될 예정이다.

제목 : MRS OSMOND
가제 : 오스몬드 부인
저자 : John Banville
출판사: Viking
발행일: 2017년 10월 5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소설/ 문학



- * **2005년 부커상 수상자, 제임스 조이스와 사뮈엘 베케트의 뒤를 잇는 아일랜드 최고의 작가가 헨리 제임스의 『여인의 초상』의 후속편으로 생각하며 쓴 특별한 소설**
- * **“존 밴빌만큼 이미지를 아름답게, 정교하게 그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 부커 상 후보, 미국 작가 한야 야나기하라(Hanya Yanagihara)**

19세기 미국 소설의 걸작으로 꼽히는 헨리 제임스의 『여인의 초상』은 인습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꿈꾸는 여인 이사벨이 꿈과 너무나 다른 현실 속에서 성숙해가는 과정을 정교하게 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인간의 의식과 심리를 깊이 파헤친 소설로 여겨지는 이 작품의 뒷이야기를 아일랜드 최고의 작가로 불리는 존 밴빌이 이 책을 통해 들려준다. 길버트 오스먼드와 결혼하여 ‘오스먼드 부인’이 된 이사벨은 헨리 제임스의 책에서 고상해서 좋았던 남편이 독단적이고 엄격한 인습을 중시하는 껍 막힌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존 밴빌은 그 이야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이사벨이 이후 어떤 변화를 겪는지 그 과정을 그리고 이사벨이 원하는 자유와 독립적인 삶의 가치를 탐구한다.

활기가 넘치고 똑똑한 젊은 여성 이사벨 오스먼드는 사랑하는 사촌 랄프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런던으로 떠난다. 런던으로 가는 건 자신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선언한 남편에게 이사벨은 복수가 뭔지도 모른다고 반박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싸늘했다. “당신은 모를지 몰라도 나는 아오. 그게 뭔지 보여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군.”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루한 삶, 침묵이 가득한 이탈리아의 집을 떠나 런던으로 떠난 이사벨은 익숙한 듯 낯선 런던의 공기 속에서 조금씩 오랫동안 잊혀졌던 자신의 옛 꿈과 목표를 떠올린다. 자유와 독립적인 삶. 넓은 세상을 체험하고 싶어 미국을 떠나 영국에 왔을 때의 일들, 막대한 유산을 물려 받아 인생을 가능성을 마음껏 펼쳐보리라 결심했던 결혼 전의 자신, 그러다 남편을 만나 결혼하면서 산산이 부서진 꿈과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현실에서 얻은 아픔들이 다시 런던을 찾은 이사벨의 머릿속에서 흘러가기 시작한다. 이사벨에게 청혼했던 사람들, 각기 다른 미래를 그녀에게 제안했던 남자들이 다시 이사벨의 눈 앞에 나타나고 숨막히는 결혼생활에 갇혀버리기 전,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던 친구들과의 만남도 그때의 추억을 한껏 되살린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다시 남편이 있는 로마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 다가오자, 이사벨은 큰 갈등을 느낀다. 서로를 속이고 기만하는 날카로운 감정이 거미줄처럼 엮인 그곳,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 빠져 나오려 해도 점점 더 강하게 숨통을 옥아매는 거짓된 삶 속으로 다시 걸어가야 할

까, 다시 한 번 반발해야 할까? 이미 한 차례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삶은 남의 것이 아닌 자신의 것임을 깨달았던 이사벨은 놓치고 살아온 많은 것들의 소중함과 가치를 런던에서 너무 생생하게 느끼면서 더 이상 가만히 숨죽여 살던 자신으로는 되돌아갈 수 없음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일단 로마로 돌아가는 이사벨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어떤 대가가 따를지언정 자유를 지켜내기로 다짐한다. 그리고 만사가 남편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두지 않기로 결심한다.

이사벨은 자신의 자유는 물론 수녀원에 머물고 있는 딸 팬시의 인생도 지켜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대가가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다. 원하던 대로 자유는 얻었지만 삶은 결코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고 거짓과 위선이 가득했던 답답한 결혼생활이 이어지던 때보다 한층 더 힘든 일들이 이사벨의 앞에서 실체를 드러낸다.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일, 가장 기본적인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한 이사벨의 고투는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

작가는 자신이 신비주의자도 아니고 위대한 작가 헨리 제임스의 영혼을 자신이 물려 받았다고도 절대 생각하지 않지만, 이 작품을 쓰는 동안 자신의 뇌 중 어느 한 부분은 자신이기를 포기하고 마치 헨리 제임스가 된 것처럼 글을 쓴 순간이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읽고 싶은 이야기를 쓰다 보면 신기한 마법이라도 부린 것처럼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 거기에서 글 쓰는 일의 기쁨을 느낀다는 작가가 오랫동안 반복해서 읽고, 분석하고, 생각해온 헨리 제임스의 작품들을 토대로 완성한 또 한편의 명작이다.

<저자 소개>

존 밴빌(John Banville)은 아일랜드 출신의 세계적인 소설가이다. 열두 살 때 『더블린 사람들』을 읽고 영향을 받아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세인트 피터스 칼리지를 졸업한 뒤 아일랜드 항공공에서 일하다가 기자 생활을 거쳐 1970년 작품집 『롱 랭킨』을 발표하면서 작가로 데뷔했다. 『닥터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뉴턴 레터』 『메피스토』와 ‘예술 3부작’ 『증거의 책』 『고스트』 『아테나』 등으로 평단의 호평과 독자의 사랑을 모두 받았으며 열네 번째 장편소설 『바다』로 맨부커상을 수상하며, 제임스 조이스와 사뮈엘 베케트의 뒤를 잇는 현존하는 아일랜드 최고의 작가로 인정 받게 되었다. 2012년에는 『오래된 빛』으로 오스트리아 정부가 수여하는 유럽문학상을 수상했다.

제목 : MY ABSOLUTE DARLING

가제 : 너무 소중한 너

저자 : Gabriel Tallent

출판사: Riverhead Books

발행일: 2017년 4월 29일

분량 : 432 페이지

장르 : 소설/ 성장소설



*** 2015년 소설 초안으로 수십 억 달러 규모의 출판 계약이 체결된 작품**

***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판권 계약 체결**

*** “추천할 만큼 잘 아는 책은 많을 수 있지만 『MY ABSOLUTE DARLING』처럼 영원히 기억에 남을 만한 책은 별로 없다. 광고에 하도 많이 쓰여 가치가 떨어져버린 ‘걸작’이라는 표현이 절대적으로 어울리는 소설이다.” – 스티븐 킹**

*** “몸과 마음, 영혼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주인공의 고투를 잔인할 정도로 정직하게, 놀랍도록 다정하게 그린 작품. 충격적이고, 독자를 뒤흔들고, 큰 감동을 주는 데뷔작이다.” – 셀레스테 웁**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아빠와 단 둘이 해안가 낡은 집에 살고 있는 터틀에게 세상은 꼭 달혀있기만 한 곳이었다. 열네 살치고 키도 큰데다 틈날 때마다 캘리포니아 드넓은 해안과 만 곳곳을 누비고 바위투성이 언덕도 수시로 오르내린 덕에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튼튼했지만 터틀의 내면은 갈수록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생존기술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아빠의 독특한 교육 철학으로 어린 나이에 충도 다룰 줄 알고 주변 지역에 안 가본 곳, 모르는 곳이 없는 터틀이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은 점점 확대되어 가는 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어쩌면 삶에 더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 그 세상에서 터틀은 점점 더 설 곳을 잃어갔다. 하나밖에 없는 딸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터틀이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못할 만큼 딸을 너무도 사랑하는 마틴의 카리스마 넘치는 행동과 걱정이 넘친 잔소리와 구속도 터틀의 내적 사회를 좁히는 중요한 원인이었다. 터틀은 학교에서도 친구들이든 선생님이든 스스로 공공 싸맨 껍질 속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리 차단했다. 늘 혼자, 또는 아빠하고만 지내는 삶이 터틀이 아는 삶의 전부였다. 그러다 제이콥이라는 고등학생을 만나면서 터틀에게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아빠 외에 자신을 그렇게까지 반기고 좋아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부터 제이콥은 터틀에게 일종의 충격을 안겨 주었다. 농담도 잘 하고 터틀이 몰랐던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태어나 처음으로 우정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터틀은 그제야 너무 한정적이던 자신의 세상을 한 발 물러나 볼 줄 아는 눈을 뜬다. 아빠와 지금처럼 계속 이런 상태로 사는 것이 결코 안전하지도 않고 지속될 수도 없다는 잔인한 현실도 영리한 터틀은 금세 깨닫는다. 제이콥을 향한 진심 어린 우정은 곧 이성을 향한 설렘으로 발전하고, 이미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터틀은 틀어박혀 나오고 싶지 않았던 현실을 벗어나기로, 스스로 탈출하기로 굳게 결심한다. 아이러니하게

도 터틀이 탈출 도구로 선택한 건 아빠가 열심히 가르쳐준 생존 기술이었다. 그렇게 느리고 서툴지만 천천히, 터틀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용기와 능력을 바탕으로 늑처럼 절대 나 올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곳에서 한 발씩 몸을 꼬집어낸다.

스스로 세상과 단절한 터틀의 아빠 마틴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인물이고, 딸이 너무 소중한해서 조금이라도 위험에 빠질까 전전긍긍한 나머지 그가 내세우는 생활 철칙들은 터틀의 삶을 고립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자신의 아버지, 즉 터틀의 할아버지와 의 틀어져버린 관계도 마틴의 다소 집착이 많고 남을 일일이 통제하려는 습관을 키우는 불씨가 되었다. 터틀은 자칫 남들의 눈에 학대로도 비칠 수 있는 아빠의 행동들이 절대 자신을 해치려는 것은 아님을 잘 알고 있지만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감을 느끼지 못한 채 이유를 알 수 없는 갑갑함에 하염없이 자연 속을 떠돌지만, 제이콥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과의 교감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면서 변화는 시작된다.

터틀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자신도 몰랐던 용기를 그러모아 자기 삶의 영웅이 되어 가는 과정, 아주 복잡미묘하게 시시각각 변해가는 등장인물들의 감정 흐름, 마틴과 터틀이 각자 생각하는 생존과 구제의 의미, 그리고 자신이 해석한 의미대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모습들이 날 것 그대로 펼쳐지는 이야기다. 울퉁불퉁한 바위와 냉천, 붉은 삼나무 숲으로 이루어진 캘리포니아 멘도시노 해안의 자연도 생생하게 그려지며 터틀의 이러한 성장과 변화의 과정에 중요한 몫을 한다.

<저자 소개>

가브리엘 탈렌트(Gabriel Tallent)는 빌라베트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현재 솔트레이크 시티에 살면서 글을 쓰고 있다. 위 소설은 그가 실제로 어린 시절을 보낸 캘리포니아 멘도시노 해변을 배경으로 썼다.

NON- FICTION

제목 : THE WELL- TEMPERED CITY

가제 : 도시 개발 평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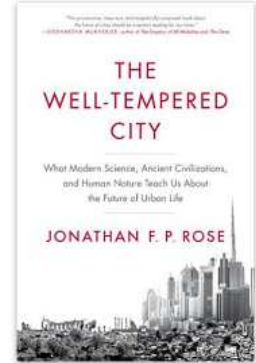
저자 : Jonathan F.P. Rose

출판사: Harper Wave

발행일: 2016년 9월 13일

분량 : 480 페이지

장르 : 사회과학



* 중국 판권계약 체결

* 전문 학술서적에 수여되는 **PROSE 어워드(PROSE Award) 2017년 수상작**

* “거대한 야망, 광대한 범위, 놀라운 성취가 돋보이는 책. 여러분이 사는 도시와 여러분, 그리고 이웃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 『**Resilience**』의 작가 앤드류 졸리

도시는 문명이 만들어지는 곳이자 문화, 교역, 발전의 중심이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가 생겨나는 곳이다.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가 100억 명을 넘어서고 그 중 70 퍼센트가 도시에서 생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1세기 도시의 상황을 보면 GDP가 늘어나고 민주주의, 문화도 발전하는 반면 도시의 중추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지도에서 사라지는 도시들이 속속 생겨나고 더 큰 도시로 청년들이 모두 떠나버리고 텅 비어버린 “유령 도시”가 늘고 있다. 반면 대도시는 기후 변화, 천연자원 고갈, 인구 급증, 소득 불평등, 대규모 인구이동, 교육과 보건 서비스의 격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상태로라면 전 세계적인 도시의 거대한 성장 흐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도시화와 지구의 환경 변화가 모두 급속히 폭발적으로 진행되는 시대를 맞이하여, 도시 개발 전문가인 저자는 이 책에서 그 해법을 고민한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 도시를 건강하게 지키고 도시 생활이 환경, 경제, 사회적으로 지속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본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장단음계를 열두 개로 균등하게 나눈 ‘평균율’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총 48개의 새로운 평균율을 두 권의 작품집으로 발표하면서 피아노 연주자들 사이에서 일종의 ‘구약성서’로 자리매김한 것을 본 따 도시개발의 새로운 ‘평균율’을 제시한다는 목표로 저자가 제시하는 방법은 크게 다섯 가지다.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과 성장의 열망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체계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응집력’이 그 첫 번째이고 에너지, 물, 식품이 도시 안에서 자연이 보여주는 효율적인 순환 체계와 같이 원활히 효율적으로 순환해야 한다는 ‘순환성’이 두 번째 요소이다. 세 번째는 홍수, 생물 다양성 감소, 급격한 변화로 인해 도시에 가중

되는 스트레스를 성공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회복력’이고 네 번째는 모든 구성원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대감과 문화를 창출하는 ‘지역 공동체’이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건강한 도시의 핵심인 타인에 대한 연민, 배려이다. 저자가 평생 이어온 연구와 현장 경험을 토대로 마련된 각 항목마다 역사적으로 본보기가 될 만한 실제 도시의 사례를 소개하여 읽는 재미와 생생함을 더한다.

현 시점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가장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인간만을 위해서가 아닌 환경을 함께 생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과 효율성을 놓치지 않은 분석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와 닿는 책이다.

<목차>

머리말. 도시가 답이다

1부. 응집력

- 1장. 대도시의 밀물과 썰물
- 2장. 성장을 위한 계획
- 3장. 제멋대로 이루어진 확장과 그로 인한 불만족
- 4장. 동적이지만 균형 잡힌 도시

2부. 순환성

- 5장. 도시의 신진대사
- 6장. 물 낭비는 너무나 끔찍한 일

3부. 회복력

- 7장. 자연의 기반시설
- 8장. 친환경 건물, 친환경 도시 생활

4부. 지역공동체

- 9장. 기회가 생겨나는 공동체 만들기
- 10장. 기회의 인지적 생태학
- 11장. 번영, 평등, 행복

5부. 인정 많은 도시

- 12장. 역임

<저자 소개>

조너선 F.P. 로스(Jonathan F.P. Rose)는 1989년에 부동산 투자와 도시개발 및 계획, 컨설팅 서비스 업체 ‘Jonathan Rose Companies LLC’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미국 건축협회 명예회원이며 미국 최초의 친환경 계획으로 뉴욕 대중교통 관리국(Metropolitan Transit Authority)이 수립한 ‘Blue Ribbon Sustainability Commission’ 사업의 대표를 맡기도 했다. 아내와 함께 설립한 개리슨 연구소(Garrison Institute)에서 ‘기후, 마음, 행동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제목 : GETTING BACK TO HAPPY

가제 : 다시 행복

저자 : Marc & Angel Chernoff

출판사: Tarcher Perigee

발행일: 2018년 봄

분량 : 70,000~85,000 words

장르 : 자기계발



*** 여러 출판사가 참여한 경매를 통해 수십 만 달러 규모로 출판계약 체결**

*** 구독자 13만 명 이상, 조회 수 2억 회 이상, 「포브스(Forbes)」 지로부터 “가장 유명한 자기계발 블로그 중 한 곳”으로 평가 받은 블로그를 통해 무수한 사람들의 인생 고민을 해결해준 부부 코치의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행복 찾기 요령**

살면서 힘든 일 한 번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때로는 답을 다 알면서도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해 허우적대기도 한다. 유독 나만 힘든 것 같은 소외감, 이번에는 도저히 이겨내지 못할 것 같다는 좌절감이 점점 더 무겁게 짓눌러 처음 생긴 문제보다 훨씬 더 큰 고통에 스스로 빠지기도 한다. 부정적인 생각이 돌고 또 돌지 않도록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알고 있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다. 어떻게 해야 지금 겪고 있는 일의 밝은 면을 볼 수 있을까? 한창 괴롭고 힘든 와중에 성장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가 부정적인 생각이고 어디까지가 실제 현실일까? 이런 질문에 답을 하려면 한 곳에 너무 깊이 머물러 있는 생각을 그 웅덩이에서 끄집어내서 생각이 더 넓게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기 블로그와 세미나, 워크숍을 통해 사람들이 그 방법을 깨우칠 수 있도록 이끌어온 두 저자는 이 책에서 알면서도 성공하지 못했던 바로 그것, ‘생각을 바꾸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준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해묵은 관점에서 벗어나 현재 자신이 겪는 고통을 한 발 물러나서 바라볼 수만 있다면 끝이 나지 않을 것만 같은 괴로움이 새삼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모두 생각의 문제이고, 남이 대신 해줄 수 없고 반드시 자신이 해야 할 일이기에 어쩌면 가장 어려운 과제일지 모르는 이 보이지 않는 산을 가뿐히 넘을 수 있도록 두 저자가 도와준다.

사람들이 평상시에 물리적, 심리적으로 좁은 시야를 가지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거기서 모든 의미를 찾으려 한다는 사실은 각종 심리학, 인지과학적 실험을 통해 수 차례 밝혀졌다. 두 저자는 자신이 그런 상태인 줄도 몰랐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야를 틔워준 그간의 사례를 종합하여 이 책에서 관점을 바꾸고 현 상황을 좀 더 이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나쁜 습관과 행동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냉정하게 평가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는 그러한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단계로, 견디기 힘든 순간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힘을 기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제시된다. 세 번째는 또 다시 힘든 일을 겪을 때 과거의 나쁜 습관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더 건강한 생각, 더 긍정적인 생각이 습관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일에 끌려 다니는 대신 의욕을 갖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것, 그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 이 세 단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최종 목표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의 방식이 따뜻한 조언과 날카로운 분석이 적절히 결합된 글로 전해지는 유익한 자기계발서다.

<목차>

- 1장. 현재에 집중하고 마음 들여다보기
- 2장. 흘러 보낼 것
- 3장. 자신을 사랑할 것
- 4장. 아침과 저녁, 일상을 바꿔야 성장한다
- 5장. 관점을 바꿔야 성장한다
- 6장. 현 상황을 바꿔야 성장한다
- 7장. 습관(의식)을 바꿔야 성장한다
- 8장. 의욕을 키우면 생각이 바뀐다
- 9장. 행복을 키우면 생각이 바뀐다
- 10장. 건강한 관계를 기우면 생각이 바뀐다

<저자 소개>

마크 체르노프(Marc Chernoff)와 앤젤 체르노프(Angel Chernoff) 부부는 다양한 삶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블로그 'Marc & Angel Hack Life'를 2006년부터 함께 운영하면서 인생 코치로 활동하고 있다. 해당 블로그는 현재 800건이 넘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13만 명의 구독자, 조회수 2억 건을 돌파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포브스(Forbes)」로부터 “가장 유명한 자기계발 블로그 중 한 곳”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두 사람은 10년 이상 사람들이 행복과 성공, 사랑,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효과적인 전략을 가르치고 글로 써서 알리는 일을 해 왔다. 두 사람이 직접 출판한 책 『1,000 Little Things Happy, Successful People Do Differently』는 총 35,000부 이상이 판매됐다.

제목 : A HISTORY OF BRITAIN IN 21 WOMEN

가제 : 영국 역사를 만든 스물한 명의 여성들

저자 : Jenni Murray

출판사: Oneworld Publications

발행일: 2016년 10월 6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역사



* “정치학과 역사를 공부하는 젊은 여성에게 안성맞춤인 책” - 「인디펜던트」

* “저평가된 인물들의 우수한 자질과 참을성, 불굴의 용기에는 평생의 교훈으로 남을 만한 가치가 담겨 있다.” - 「텔레그래프」

* “이름은 들어봤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들의 이야기를 저자의 따뜻하고 유려한 문장으로 읽을 수 있었던 멋진 책이다. 흥미진진하고 학문적으로도 우수한 책.” - 베스트셀러 『*Eleanor of Aquitaine*』의 저자 엘리자베스 채드윅

“세계의 역사는 위대한 사람들의 일대기와 같다”는 영국의 역사가 토머스 칼라일의 말에서 ‘위대한 사람’은 곧 위대한 남성들을 의미하고, 여성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한 인식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 것도 사실이다.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고 대중의 삶을 통제하고 우리의 물리적, 문화적 삶을 관장하는 역할, 그리고 사회를 움직이고 뒤흔드는 원동력이 모두, 혹은 대부분 남성들에게서 비롯됐다는 생각이 역사적으로 당연시되어 왔다. 그에 반해 여성들의 역할은 좋은 아내이자 엄마가 되는 법을 열심히 익히고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것으로 한정됐다. 저자는 고등학교 시절, 처음으로 역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 인물 중에 여성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받은 충격을 생생히 떠올리며, 이 책에서 ‘여성이 만든 영국 역사’를 스물한 명의 위대한 여성들의 업적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준다. 역사의 흐름을 바꾼 여성들, 사회가 정해놓은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과감히 도전하여 변화를 일으킨 여성들의 놀라운 용기와 성과가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된다.

이케니족의 여왕이 되어 영국을 점령한 로마 제국의 군대와 맞서 대항했던 부디카, 영국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 된 미국인 여성 낸시 애스터, 여성의 참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한 사회운동가 에멀린 팅크허스트, 남성들이 독점하던 의사라는 직업에 당당히 첫 여성의사가 되고 영국 최초 여성 시장의 자리에도 오른 엘리자베스 가렛 앤더슨, 그리고 미니스커트를 세계적으로 유행시키고 밝고 경쾌한 디자인에 끌리는 사람들의 욕구를 꿰뚫고 패션 산업에 혁신을 일으킨 메리 퀴트에 이르기까지, 영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막강한 힘을 발휘한 스물한 명의 여성들이 각 장마다 소개된다. 저자는 영국 역사에 실제로 큰 획을 그은 수백만 명의 여성들 중 이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세상의 흐름을 바꿔 놓은 주체가 남성만은 아님을 보여주는 위대한 여성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전통적으로 갈등과 정복전쟁이 반복됐던 영국은 그러한 특성 때문에 남성의 역할이 부각되고 그들의 독재적인 통제력이 당연시됐는지도 모른다. 저자는 시대와 상황이 달라진 만큼, 고정되어 버린 사회의 규칙에 순순히 굴복하지 않고 희망과 변화를 위해 앞으로 나선 다양한 분야의 여성들에 주목하며 한쪽으로 치우친 역사의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한다. 새로운 눈으로 역사적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게 이끌어주는 흥미로운 역사서다.

<목차>

머리말

1장. 부디카

2장. 엘리자베스 1세 여왕

3장. 애플라 벤

4장. 캐롤라인 허셜

5장. 패니 버니

6장. 메리 울스턴크래프트

7장. 제인 오스틴

8장. 메리 서머빌

9장. 메리 시콜

10장. 에이다 러브레이스

(이하 생략, 총 21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제니 머레이(Jenni Murray)는 저널리스트이자 1987년부터 BBC 라디오4에서 'Woman's Hour'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저서로는 『Memoirs of a Not So Dutiful Daughter』 등이 있다.

제목: AWAKENING COMPASSION AT WORK

가제: 직장에서 연민 일깨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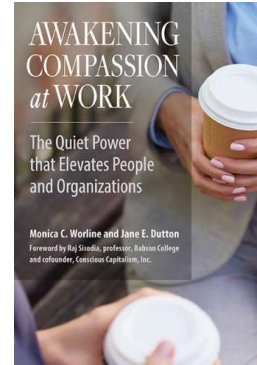
저자: Monica Worline & Jane Dutton

출판사: Berrett-Koehler Publishers

발행일: 2017년 2월 20일

분량: 272 페이지

장르: 경영



* 국내 일간지 「매일경제」에 책 소개와 저자 인터뷰 기사 게재(4월 20일자)

* “조직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연민을 가질 때 얼마나 큰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는지 상기시켜주는 인상적이고 놀랍도록 세밀한 분석이 담긴 책”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StrengthsFinder 2.0」의 저자 톰 래스

* “사무실에서 자신의 가치를 따져보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일 때 비로소 팀과 조직이 형성된다는 것을 두 세계적인 전문가가 알려준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Give and Take」, 「Originals」의 저자 애덤 그랜트

24시간으로 한정된 소중한 하루 중 잠자는 시간 외에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직장 생활이 괴롭다면, 생각보다 엄청난 대가가 따른다. 업무 의욕이 사라져 조직의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삶의 의욕까지 저하되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존엄성과 인간성의 수준도 저하되는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학자이자 리더십,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언해온 컨설턴트인 두 저자는 20여 년간 이어온 연구로 확보한 탄탄한 증거들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고통스러운 직장생활을 즐겁고 만족스럽게 바꿀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한다. ‘연민’이라는, 직장 과 다소 어울리지 않은 것 같은 개념을 핵심으로 삼아 왜 조직 생활에 연민이 반드시 필요한지 설명하고, 조직과 구성원 모두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공에 연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준다.

두 저자는 국내 일간지 「매일 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연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4단계의 인간 경험”이며 “리더가 연민을 느껴 한 직원을 도와준다면 그가 본인의 몫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쓸데없는 두려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민은 “단순히 누군가를 위하고 타인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고통 받은 뒤에 그 사람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하며 괴로워하는 누군가의 심정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원리를 토대로, 이 책에서 두 저자가 소개하는 ‘연민 일깨우기’ 전략은 총 네 단계로 나뉜다. 첫 단계는 동료의 행동을 ‘인지’하는 것으로, 평소 행동을 알아야 동료가 무언가로 고통스러워할 때 알아챌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두 번째 단계는 ‘해석’이다. 괴로워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그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를 찾는 방법이기도 한 이 단계는 왜 우리가 힘들어하는 사람을 외면하게 되는지 그 원인을 해석해봄으로써 그것이 온당치 않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의 기준이 아닌 괴로워하는 사람의 마음에 맞춰 그의

상태에 관심을 기울이고 대화를 나누는 단계이며 네 번째 단계는 그 고통이 사라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단계이다. 두 저자는 이 행동이 대부분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며 거창한 해결책이 아닌 손 잡아주기, 편지 쓰기 등 감정적인 지지를 표현하는 것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최근 TED 강연과 자기계발서의 주제로 자주 등장하는 ‘연민’이라는 키워드를 조직 개선의 핵심열쇠이자 개인과 조직 모두의 행복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초점을 맞춘 참신한 책이다.

<목차>

1부. 괴로움, 연민, 일에 대하여

1. 직장에서 연민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2. 직장에서 연민이 그렇게 중요한 요소일까?

2부. 직장생활에서 연민 일깨우기

3. 알아채기: 연민을 일깨우는 출발점
4. 해석하기: 연민을 갖고 반응하기 위한 핵심
5. 느끼기: 연민이 담긴 행동으로 이끄는 가교
6. 행동하기: 직장에서 느끼는 괴로움을 줄여주는 변화

3부. 조직에서 연민할 줄 아는 능력 일깨우기

7. 연민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비전 확립
8. 연민할 줄 아는 능력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9. 연민할 줄 아는 능력을 확립하기 위한 계획
10. 연민할 줄 아는 능력을 확립하기 위한 리더의 역할

4부. 직장에서 연민을 일깨우기 위한 청사진

11. 개인적인 청사진
12. 조직의 청사진
13. 연민 일깨우기에 방해가 되는 요소 극복하기

맺음말. 일깨워야만 하는 이유

<저자 소개>

모니카 월라인(Monica Worline)은 스탠포드 대학교 ‘연민·이타주의 연구·교육센터’의 협력 과학자이자 리더십 계발 업체인 ‘Vervago’의 공동 설립자 겸 대표를 맡고 있다. 제인 더튼과 함께 인라이브워크(EnlivenWork)를 창업했다.

제인 E. 더튼(Jane E. Dutton)은 미시건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산업행정과 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재직 중이다. 100권이 넘는 글을 기고했으며 13권의 책을 편집했다. 저서로는 『Energize your Workplace』가 있다.

제목 : BE DECISIVE - NOW!

가제 : 확실한 의사결정

저자 : Jos van Rozen

출판사: Pearson

발행일: 2016년 8월 19일

분량 : 296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고, 가치를 높이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용적이고 새로운 팁이 가득 담긴 책이다.” – 노키아 경영자육성 담당자, 돈 프레이저
- * “많은 회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만 몰두할 뿐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분석하지 않는다. 이 책은 그 첫 단계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구와 전략을 알려준다.” – 캐나다 코카콜라 대표, 빌 솔츠

어떤 분야의 사업이든 아무 일 없이 순탄하게 흘러가기보다는 사소한 것부터 회사의 사활이 걸릴 만큼 큰 문제까지 무수한 문제가 발생하게 마련이다. 또한 더 많은 이윤을 낳기 위해, 더 좋은 구성원을 뽑고 직원들이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에는 ‘의사결정’이라는 중요한 단계가 포함되어 있다. 조직의 의사결정 방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정된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 틀이 잘못된 경우 계속해서 잘못된 결론이 도출될 위험이 있다. 의사결정과 중요한 가치를 전달하는 전략을 가르쳐 주는 컨설턴트로 수많은 기업가들, 사업 팀들과 만나온 저자는 이 책에서 아주 간결하게 핵심만 쏙쏙 정리한 의사결정의 팁을 소개한다. 긴 설명 대신 서너 문장으로 간략하게 문제점을 잡고 “이렇게 해보자(Do it)” 이라는 솔루션 박스를 하나하나 달아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명확한 길을 제시한다. 이처럼 독특한 ‘투인원(2 in 1)’ 방식의 지침은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 봉착한 문제를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늘 해오던 생각 대신 참신하게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이끈다.

같은 문제에 반복해서 시달리거나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처음부터 문제의 본질보다는 해결책을 찾아내는 데 몰두한다는 점도 큰 몫을 한다. 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배경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근본적인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오류가 발견될 수 있지만 이미 벌어진 상황을 제시한 후 그 문제를 없앨 방법만 찾아내려다 보니 일시적으로 눈을 가리는 허술한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다. 또한 문제에 대한 진지한 분석이 없으니 어디까지가 원인이고 어디까지가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인지도 제대로 구분되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저자는 ‘문제 제시- 해결팁’으로 구성된 투인원 가이드를 통해 문제의 큰 그림과 세부적인 요소를 모두 들여다보고 의사결정을 올바르게, 그리고 신속하게 내릴 수 있는 전략을 소개한다. 무엇을 우선순위로 놓아야 하는지, 머릿속에 떠오른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인지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지,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준다. 또한 어떤 선택이든 완벽할 수 없는 만큼 새로운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대비하고 지난 의사결정을 다 끝난 일로 지워버리는 대신 미래의 의사결정을 위한 값진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준다.

올바른 시점에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 사업가든 조직의 구성원이든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 단계를 현명하게 밝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익한 지침서다.

<목차>

1.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라
2.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3. 돈을 ‘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4. 자신의 선택이 옳은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라
5. 성공을 위한 준비
6. 위기는 현실적으로 대응하라
7. 앞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지나온 길을 점검하라

<저자 소개>

조스 반 로젠(Jos van Rozen)은 15년 넘게 기업 합병, 자본관리, 신제품 개발, 가격 책정 분야의 사업 관리자와 전략 계획가들을 대상으로 의사결정과 의사전달 전략을 알려주는 컨설턴트로 일해왔다.

제목 : CYCLES OF INVENTION AND DISCOVERY

가제 : 발견과 발명은 공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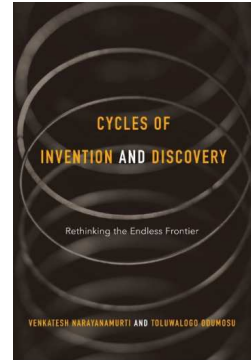
저자 : Venkatesh Narayanamurti and Toluwalogo Odumosu

출판사: Harvard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6년 10월 24일

분량 : 176 페이지

장르 : 과학/공학



- *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 정책과 우수한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일 모두에 중대한 기여를 한 책이다. 연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관료와 대형 연구사업을 이끄는 사람들이 모두 읽어야 한다.” -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교수, 토머스 E 에버하트
- * 수십 년간 연구사업을 관리하고 과학과 기술 연구를 해온 두 저자가 기초과학과 응용 과학을 잘못 구분하는 것이 정책 결정에 얼마나 큰 낭비를 불러오는지 알려준다.” - 『*A Social History of American Technology*』의 저자 루스 슈워츠 코완

2015년 2월, 미국의 저명한 학술지 「사이언스」에 미국 하원의원 한 사람이 똑같은 분야의 연구 사업에 할당된 지원금이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에너지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는 연구비가 42 퍼센트나 늘어난 반면 에너지부 산하 과학 사무국에서 추진하는 “기초” 연구에 배정된 지원금은 겨우 5 퍼센트가 늘어났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는 “기초 연구 사업이 동일한 기관에서 덜 중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된 걸까? 실제로 공하당 하원의원들이 백악관에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줄이고 기초과학 연구비를 높여야 한다는 요청까지 할 만큼 정책적으로도 시정해야 할 문제로 여겨질 만큼 두 분야의 우선순위에 큰 차이가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 그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현재 미국의 과학과 기술은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를 구분하는 모형에 따라 둘로 나뉜다.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직접 연구를 수행하고 국가 연구사업을 이끌어온 두 저자는 이와 같은 이분법이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현장에 어마어마하게 큰 부정적 영향을 발생시켜왔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한다. 당연한 듯 광범위하게 수용된 이 같은 이분법 모형은 연구자들이 실제로 해야 할 일임에도 하지 않게 만들고, 정부가 지원금을 책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수립한 분류 시스템에도 막대한 영향을 준다. 연구는 그 특성상 정확한 경계를 정할 수 없다. ‘발견’의 순간이 찾아오면 ‘발명’으로 이어지는 것이 연구의 주된 특징이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도구, 장비의 개발이라는 성과를 낳는다. 이 순환 구조에 선을 긋고 기초와 응용을 구분하고 그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연구비를 할당한다는 개념 자체가 틀린 생각이라도 두 저자는 설명한다.

노벨상을 수상한 발명품인 MRI와 트랜지스터, 레이저 등 우리에게 친숙한 사례를 통해 두 저자는 지식을 발견하려는 연구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방법을 찾으려는 연구가 어떻게

하나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준다. 또한 미국의 핵심 연구기관을 두루 조사하며 부적절한 이분법식 연구 방식과 대비되는 통합적인 연구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생태계의 규칙과 같이 자연스러운 순환구조를 그대로 보존하는 연구와 그에 맞는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두 저자의 설명은 충분히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목차>

1. 벽을 허물고 다리를 지어라
2. 과학 연구와 공학 연구의 경계
3. 기초와 응용의 이분법: 선형 모형의 불충분함
4. “기초”와 “응용”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배경
5. 발견과 발명의 순환주기
6. 벨 연구소로 살펴본 기관 문화의 중요성
7. 빠르게 혁신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설계
8. 과학 기술 정책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이유
9. 과학 기술 정책, 앞으로 나아갈 방향

<저자 소개>

벤카테쉬 나라야나무티(Venkatesh Narayanamurti)는 하버드 대학교 공학·응용과학부에서 기술과 공공정책을 가르치는 교수로 재직 중이다.

톨루왈로고 오두모수(Toluwalogo Odumosu)는 버지니아 대학교 공학·응용과학부에서 과학, 기술, 사회학 부교수 겸 전기·컴퓨터공학 부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